11일 Market Index
코스피 5354.49 (+52.80)
코스닥 1114.87 (-0.33)
금리(국고채 3년) 3.200 (-0.024)
환율(원·달러) 1453.05 (-6.0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글로벌 전력망 투자 50% 확대 전선업계 '호실적' 04

✔반도체 ✔증시 ✔위기관리

대기업 신용 줄상향

S&P 'A등급' 이상 기업 9곳

S&P글로벌 레이팅스는 지난 4일 삼성전자의 장기 신용등급을 'AA-'(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수요 확대로 신용지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메모리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은 약 10%포인트 상승해 3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S&P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1~2년간 자본지출 규모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이미 탄탄한 순현금 포지션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신용등급은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Baa1'에서 'A3'(안정적)로 상향됐다. 'A3'는 무디스의 21개 등급 중 상위 7번째다.

S&P, 삼성전자 신용 'AA-' 평가
"순현금 포지션, 한층 강화할 것"
무디스, 현대글로비스 'A3' 상향
삼성·LG·SK 등 대기업 계열사도
최근 3개월 새 등급·전망 조정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및 증시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잇달아 'A등급'(A-, A3, A- 이상)과 '안정적'이라는 신용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몰아친 시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시대의 영향도 컸다. 증시는 여러 경로로 경제와 기업에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려 내수 시장(기업 판매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결과 현재 S&P로부터 A등급 이상 평가 받은 회사는 9개(금융·보험 등 제외)로 나타났다. 7년전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로부터 'A'등급을 받은 7곳(2019년 말 기준)보다 2곳이 많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A' 등급을 받은 비금융 계열 한국 기업 수가 1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지난 1월 LG전자 신용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올리고,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가 LG전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주요 재무지표가 개선됐고, 향후 1~2년 내 실적 반등에 따른 추가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LG전자가 지분 36.7%를 보유한 관계사 LG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LG전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비율이 2024년 2.4배에서 2025년 2.1~2.2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평가는 S&P에 앞서 무디스가 먼저 움직였다. 무디스는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지난해 1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지 10개월 만에 다시 '안정적'으로 복구한 것이다. 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과 같다.

무디스는 iM뱅크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상향 근거로 자산 건전성과 안정적 수익성을 꼽았다.

S&P는 지난 5일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BBB+'로 상향했다.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하이퍼스케일러의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는 HBM, 서버용 D램, 그리고 eSSD(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의 경우 올해 112조원, 내년 116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실적(매출 94조원, EBITDA 61조원)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세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A등급을 받으면 대외 신인도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진다"고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및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면서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6 개막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관람객들이 WTR 원통 좌표형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갤럭시 S26' 26일 베일 벗는다

美 샌프란시스코서, 갤럭시 언팩
프라이버시 보호 등 AI기능 도입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시리즈가 오는 26일 오전 3시 베일을 벗는다.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는 이전보다 고도화된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더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6 초대장을 공식 배포하고 한국 기준 26일 새벽 3시(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갤럭시 S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갤럭시 언팩의 행사명은 '삼성 갤럭시 이벤트 - The Next AI Phone Makes Your Life Easier'이다. 행사명이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차세대 AI 폰'으로 명명된 만큼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 또한 AI 기능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에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앱 단위의 기기 제어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AI 기능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S26에는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앱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2600' 탑재가 유력하다. 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이미지 생성 모델 '엣지퓨전'이 적용될 전망이다.

엣지퓨전은 텍스트로 입력한 명령을 기반으로 1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AI로 고성능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해왔는데, 여기에 더 빠른 속도까지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이어 퍼플렉시티 모델까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갤럭시 폰의 음성 비서인 '빅스비'에 퍼플렉시티 모델을 결합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갤럭시 S26 시리즈는 최근 IT업계 전반을 덮친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인상의 영향으로 출고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울트라 등 최상위 모델의 경우 시작 가격이 18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작인 갤럭시 S25 울트라의 시작 가격은 169만8400원이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사족보행 로봇 '스팟' 산업현장 '특급 도우미'

英서 원자력 시설 활용모습 공개
정밀검사 필수 고위험 환경 작업

지난 2019년 상용화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산업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나믹스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에서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에서 '특급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당국 산하 공기업인 셀라필드는 스팟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셀라필드 현장을 순찰하는 모습.

이번 사례는 로봇이 고위험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셀라필드는 원자력 시설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맡는데 현장의 방사선 영향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일이 잦다. 이들 현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작업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과제였다.

셀라필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팟을 활용한 로봇 기반 현장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스팟이 네 발로 걸어다니며 사람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데이터 수집과 원격 점검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李 대통령, 美와 비관세장벽 이면 합의 있었는지 밝혀야"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에 "4심제 도입법…헌법 파괴"
▲장동혁, 보수 텃밭 대구 찾아 민심 청취… 오후엔 호남 방문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장 출마 "대구 정치 진절머리"
▲정동영 "남북, 서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前 합참 작전본부장·차장 '파면'